古代 濟州 敎育行政史 硏究艸

梁 鎭 健*

目 次

Ⅰ. 序 論
Ⅱ. 本 論
1. 古代 濟州社會의 敎育行政
가. 古代 濟州敎育의 特徵
나. 古代 濟州敎育行政 現況
2. 耽羅國의 敎育行政
가. 耽羅의 敎育行政 現況
나. 耽羅의 技術敎育行政 現況
Ⅲ. 結 論

Ⅰ. 序 論

本 硏究艸는 「濟州 敎育行政史 硏究」를 위한 試論的인 글로서 古代 濟州 敎育行政의 형식과 내용 全般을 歷史的인 측면에서 개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원래 교육행정은 국가의 法的 規定에 의한 公敎育 제도의 성립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통념이긴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지극히 機能主義的인 것으로서 敎育은 삶의 原現象이라는 교육사상사적 의미를 애써 배제하려는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본 試論은 교육행정 역시 現實的으로 活動하고 있는 人間(die wirklichen, wirkenden Menschen)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전제로 古代 濟州島에서 행하여졌던 敎育의 諸脈絡을 교육행정사적 측면에서 개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協同行爲論的 논리를 수용하고 있기는

* 師範大學 교직과

하지만 그러나 특정한 입장에 국한되기 보다는 소위 解釋學的 循環(hermeneutischer Zirkel)의 문제제시를 통해 濟州 敎育行政史 전반을 관통하는 '좀더 높은 共通的인 어떤 것'(etwas höheres Gemeinsames)을 고찰해 보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Ⅱ. 本　　論

1. 古代 濟州社會의 敎育行政

가. 古代 濟州 敎育의 特徵

濟州島 原住民은 북방대륙으로부터 이주해 온 여러 종족과 주변 여러 島嶼地方으로부터 流移한 종족들로 복잡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다. 濟州島에 漂着한 여러 종족들은 외부와 교류가 차단되어 있는 絕海孤島인 이 섬에서 살아가는 동안 서로 同化融合하여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濟州島는 이렇듯 북방대륙 계통과 주변 島嶼의 漂流民이 혼합되어 성립된 까닭으로 그 문화는 北方的인 것과 南方的인 색채를 동시에 띠게 된다.[1]

이런 가운데 濟州島 原住民들이 행하였던 敎育의 원래적인 모습을 古代 제주도 사회의 공동체적인 生活樣式에서 찾아보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물론 제주도의 고대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자각같은 것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설사 존재했다고 할지라도 生活自體의 목적과 동일했었을 것임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그러므로 제주도 고대사회 교육의 목적은 保存(conservative)에 있다[2]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경험의 정립된 자본을 영속화하고 보존하는 방법으로 제주도 나름의 敎育風土가 형성되었다는 말이다. 사실 고대사회에 있어서 集團生存은 집단의 교육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목적이기도 했다. 개인은 집단의 교육목적들과 다른 것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다.

集團生存, W. Dilthey의 解釋學[3]에 있어서 생존 즉 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가지의 哲學的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산다는 것은 체험하는 것이며, 표현하는 것이며, 이해하는 일이 그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산다는 것은 無定型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형식들을 삶의 필연성으로 인정하는 일이다. 우리가 집단생존이라는 고대사회의 삶의 양식에서 보존적인 교육목적을 유추해 낼 수 있음도 바로 인간 생존의 이러한 철학적 의미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존적인 교육목적은 고대 제주인들의 삶을 구체화시키는데 필연적으로 인정되어야할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을

1) 1985년 濟州道 北村里 고두기 언덕에서 발굴된 新石器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와 골각기는 慶南 신안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과 유사하며 靑銅器 시대의 濟州島 支石墓는 육지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南方系統의 圓卓型이라고 한다.

2) 保存的인 敎育目的에 대해서는 Brubacher, J.S., *A History of the Problems of Education*, New York & London : McGraw-Hill Book Company, INC, 1947, Chapter Ⅰ. 參照.

3) Dilthery, W., *Gesammelts Schriften V*, Göttingen, 1968, 參照.

것이다. 여기서 부터 교육은 구체적으로 관습이나 제도 등 일정한 형식 아래서 실현되고 전개되는 것이다.

나. 古代 濟州敎育行政 現況

集團生存을 위해 일차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은 집단성원의 관리 문제이다. 그것은 곧 인구조절과 관련된 문제로서 이러한 인구를 조절하는 절차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곧 出産과 葬事의 禮들이다. 집단성원의 생존과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실행되었던 원시시대의 子女殺害 風習[4]이나 成年式[5]은 그 대표적인 관습이다. 子女殺害가 집단생존을 위한 육아수 제한제도였다면 成年式은 인간집단이 시도한 집단교육의 최초제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出産과 葬事의 예는 단순히 通過儀禮의 節次로 한정되기 보다는 개인이 살아가는 생활의 일부분이며 文化的 期待에 따라 집단적으로 강요되는 일련의 社會敎育的 敎育風習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풍습의 관리는 古代敎育의 보존적 목적을 정당화시키는 일련의 敎育行政的 節次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예는 제주도의 支石墓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支石墓는 우리나라의 部族國家 혹은 族長社會(Chiefdom society) 단계의 지배층 무덤으로서 제주도 전역에 걸쳐 60餘基가 분포되고 있으며 歷史 黎明期의 제주 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적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런데 B.C 1세기 경에서 기원 전후한 시기가 編年이 예측되고 있는[6] 北濟州郡 涯月邑 光令里 支石墓群을 보면 여러 基의 지석묘 上石에 무수한 性穴(cupmark)이 패여 있음을 볼 수 있어[7] 지석묘가 단순히 墳墓의 기능에만 한정되지 않았었음을 알 수 있다. 性穴은 豊饒와 多産을 기원하는 주술적 내지 원시신앙적 의미를 갖고 있는 象徵으로서 소위 자손을 낳기 위하여 인간보다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 초인간적인 능력을 지닌 대상에게 기원하는 祈子風俗의 부산물로서 致誠祈子의 대상물이다.

祈子風俗은 지역에 따라 특이한 경우가 많은데 出産力을 얻는 비방으로 제주도에서는 달밤에 三陽과 같은 바닷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운모 성분이 많은 모래로 부녀자의 복부를 찜질하는 풍습이 고래로 부터 전해져 내려왔었다. 거무스름한 모래는 달빛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달과 풍요와 물과 여성의 생산원리와의 관계에서 볼 때 부녀자에게 출산력을 강화해 준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祈子俗은 전통사회의 育兒敎育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풍속이며 지석묘의 性穴은 그러한 풍속의 고대적 전형이다. 결국 지석묘는 출산과 장례를 동시에 담당해줌으로써 집단의 생존을 옹변하는 기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4) 梅根悟, 「世界敎育史」, 東京 : 新評論社, 1967, 第1章, 原始時代の敎育, 參照.

5) Peters. R.S., *Etics and Education*, London : George Allen & Unwin LTD, 1970, Chapter 2. Education as Initiation, 參照.

6) 李淸圭, 濟州道 支石墓(1), 「耽羅文化」 第4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硏究所, 1985, p.47.

7) 上揭書에 의하면 전체 23호의 支石墓 가운데 제2호와 제13호, 제17호가 性穴이 패여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제주도 고대사회의 집단생존을 위한 보존적인 교육목적이 行政的인 次元에서 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지석묘의 축조 과정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지석묘의 대략적 무게는 7톤 정도이며 100㎏ 정도가 성인 남자 1인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라는 설을 따른다면 하나의 지석묘 운반에 70여명의 성인 남자가 동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李淸圭는 평균 4.5인 정도로 구성된 生物學的 家族에서 1인의 성인의 남자가 있다고 가정하여 光令里 일대에만도 최소한 300여명의 인구가 거주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8] 그리고 이러한 지석묘 축조와 같은 大役事가 있을 때 인접한 몇 개의 마을 또는 씨족이 두레같은 일종의 協同組織體를 구성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추정할 수 있다. D. Waldo같은 이가 行政을 고도의 합리성을 가진 集團的 協同行爲라고 규정하였듯이[9] 우리는 지석묘 築造를 둘러싸고 진행되었던 組織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協同하는 과정으로서의 行政的 節次를 보게 된다.

두레는 사람을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결합할 때는 일종의 정신공동체이나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모여들 때는 촌락과 같은 지역공동체이며 「徒」로서 三韓社會에 이미 존재했음은 李丙燾가 지적[10]한 바와 같다. 그리고 인접한 촌락의 두레 혹은 도는 그 탄생의 先後를 따져 형두레, 아우두레의 구별이 있으며 제주도에 있어서 三姓神話 중 三乙那의 소거지가 일도, 이도, 삼도라는 사실은 이를 반증하는 좋은 예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삼성신화의 구조체계는 제주도 고대사회의 思考體系와 意識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고대사회의 敎育構造와도 관련이 깊다. 이런 점에서 삼성신화 역시 제주도 고대사회의 집단생존을 위한 보존적인 교육목적이 일련의 행정적인 차원에서 관리되었음을 시사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삼성신화의 구조를 도식화시켜 보면 湧出한 神人이 三人이요, 그 所居地가 一, 二, 三都(徒)로 三分되어 있고 三乙那가 長, 次, 三의 三階層으로 序列化되어 있는데 이 話素들은 社會空間과 社會秩序의 認識樣相이다. 所居地의 三分은 사회공간의 삼분이며 三人 湧出 그리고 三階層의 序列化는 사회질서 구조의 삼분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價値槪念의 序列化를 의미함과 동시에 社會成員의 階層化를 입증하는 사례이기도 한 것이다. 소위 三이라는 수의 원리가 事象마다 일관되어 있는 것은 고대 제주도 사회조직의 관리 행정 기능이 三分體系의 構造로 分化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으며 결국 사회의 三部組織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11]

특히 玄容駿[12]은 三姓神話의 구조를 해명하면서 高乙那는 '높을너'로 높은 이(崇高)의 뜻, 良乙那는 '어질너'로 어진 이(善良)의 뜻, 夫乙那는 '불너 내지는 '불너'로 밝은 이(光明)의 뜻이 된다고 해석하였는데 이러한 해석은 여러가지 면에서 시사적이다. 특히 이것을 바탕으로 立約과 施政 그리고 行刑의 組織機能에 대한 유추가 가능해지는데 즉, 崇高의 고을나는 立約의 조직이며 善良

8) 上揭書, p.72.
9) Waldo, D.,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New York : Random House, 1967, Preface, 參照.
10) 李丙燾, "마을과 두레의 起源과 名稱", 「韓國古代社會와 그 文化」, 瑞文文庫 71, 서울 : 瑞文堂, 1975, pp.20~30.
11) 玄容駿, "三姓神話硏究", 「耽羅文化」 第2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硏究所, 1983, pp.41~45.
12) 註11) 參照.

의 양을나는 施政의 조직이며, 光明의 부을나는 行刑의 조직을 상징적으로 드려내고 있다는 말이다. 이같은 三乙那類의 三部組織은 역사적으로 볼 때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니며[13] 결국 삼성신화의 삼분체계적 구조는 나아가 「計劃-組織-統制」 하는 現代行政의 管理組織(management organization)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유추는 古代 王權은 전제적이지 않았다는 기존의 정치사 硏究[14]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하다. 이를테면 국가와 시대에 따라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국가형성기 和白會議에 의했던 신라의 귀족연합제 지배방식과 마찬가지로 탐라국의 개국설화가 함축하고 있는 三部組織 역시 立約, 施政, 行刑의 사무 분장을 통한 조직의 合議的 支配方式이 가능했었음을 웅변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합의적 방식은 제주 三神人이 살 땅을 활을 쏘아 정했다는 射矢卜地의 설화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牽強附會의 논리가 아님을 증거하고 있다. 金宗業 역시 각씨족장들의 협의하에 射矢卜地가 이루어졌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는데[15] 그는 이를 바탕으로 一都, 二都, 三都에서 제주도 전지역을 濟州, 旌義, 大靜으로 三分하는 관할 지역의 구역 정리가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三分體系的 構造는 단적으로 말하자면 고대의 제주인들을 拘束(Seinsgebundenheit)하였던 「精神生活의 行政」[16]으로서 곧 敎育行政의 古代的 典型이라 할 수 있다. 徒의 개념이 두레조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면 제주도의 일도, 이도, 삼도는 일종의 敎育 두레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며[17] 따라서 삼분체제는 곧 교육 두레의 교육행정적 구제체계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 것이다. 원래 국민의 정신적 생활에 관여하는 형식 및 한계에 관한 公的 規定이 전체 의지에 의한 명령으로 될 때 한 민족의 精神生活의 行政은 성립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삼부조직은 곧 고대 제주도 사회 성원들의 정신적 생활에 관여하는 형식 및 한계에 관한 공적 규정이며 결국 고대 제주도 사회라는 共同體(Gemeinschaft)의 보존과 관련된 행위적 활동으로서 제주도 고대 교육행정의 독특한 구조인 것이다.

공동체의 보존과 관련된 행위적 활동으로서 제주도 고대 교육행정의 구조는 단편적이나마 그 밖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삼성신화와 관련하여 전해내려오는 설화 가운데 婚姻址 설화가 있는데 탐라의 시조 三神人이 溫平里 바닷가에서 세 처녀를 맞아들여 혼례를 올림으로써 비로소 제주민이 늘어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세 처녀의 출신성분에

13) 역사적으로 볼 때 神市와 古朝鮮의 風伯, 雨師, 雲師의 三伯組織과 大震의 政堂省, 宣詔省, 中臺省 三省組織 그리고 高麗의 中書省, 門下省, 尚書省의 三省組織과 朝鮮의 領議政, 左議政, 右議政 등 三政丞 組織, 韓國의 立法部, 行政部, 司法部의 三部 組織 등이 現代 組織論의 計劃, 組織, 統制의 管理機能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4) 井上秀雄, 「新羅史 基礎硏究」, 東京 : 有斐閣, 1974, 參照.

15) 金宗業, 「耽羅文化史」, 濟州 : 조약돌, 1986, p.45.

16) Stein, L, v., 猪木正道 譯, 「社會の槪念と運動法則」, みすず書房, 1949.

17) 金炯孝는 高麗朝 崔沖의 私學十二徒도 일종의 敎育 두레로 보았다. 金炯孝, 韓國神話의 原形, 「韓國哲學史」 上卷, 東明社, 1987, p.12.

대해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무엇보다 혼인지 설화가 내포하고 있는 地域外婚姻 문제이다. 우리의 전통사회는 優生學的인 안목에서 지역외혼인을 장려하였었다. 이 婚姻圈은 본래 '百里內 不婚'이라는 우생학적 결혼관행 때문이었는데 전통사회에서 백리내 불혼의 결혼관행이 실시된 증거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18] 즉 양반일 수록 通婚圈이 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고 양반 중에도 家格이 높을수록 백리 이상의 결혼이었다. 呂重哲의 연구[19] 결과 백리 이상의 遠婚을 하는 경우는 반촌의 同族員 중에서도 가격이 높은 집에서 한했다는 것이다.

혼인지 설화가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지역외혼인 문제는 궁극적으로 결혼에서부터 시작된 한국의 전통적 育兒方式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가치가 크다. 지역외혼인은 전통사회가 지리적, 풍토적 특성에서 기인될 수 있는 劣性 要因끼리의 결합을 예방하려는 우생학적 결혼관행으로서 법적인 제재력 같은 것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사회인들의 행동과 사고를 지배하였고 그러한 영향력으로서 전통사회인들의 생활방식에 관련된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관행에 순응되어 지켜져 온 것이다. 그러한 慣行의 遵守야말로 정신생활의 행정이 지향하는 핵심내용이며 전통육아방식의 절차로서 育兒敎育과 관련한 교육행정의 또다른 시사이기도 한 것이다.

2. 耽羅國의 敎育行政

가. 耽羅의 敎育行政 現況

狩獵時代에서 農牧時代로의 정착과 氏族社會에서 部族國家로의 형성을 의미하는 제도는 三姓神話에서 볼 수 있듯이 高, 良, 夫 삼성의 씨족사회가 발전하여 三氏族의 공동체인 原始部族國家가 성립되는데 이것이 곧 耽羅國이다. 권력이 세습되는 단계에 이르면 세습제도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서 혈연적 출자의 신비화가 도모된다. 각 혈연집단의 시조가 神格化되며 아울러 현실에서의 권력의 분포상태를 반영하여 位格을 달리하는 신화가 나타나고 예속집단의 신화는 위축 폐기된다. 삼성신화는 바로 그러한 혈연적 출자의 신비화를 근거로 탄생되었던 것이며 그것은 탐라국의 前歷史(Vorgeschichte)였던 것이다. 耽羅國은 처음에 가라국, 백제와 교통하였고 12세기 초까지 耽羅, 涉羅, 屯羅, 耽浮羅, 乇羅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며 독립국가로서 그 명맥을 유지했었다. 三國時代에는 百濟, 新羅와도 활발히 通交하면서 朝貢하였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자주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졌었다.

탐라국 행정조직의 성립과정을 개괄해 보면 삼성신화 설화에서 보듯 초기는 三姓氏族을 중심으

18) 金宅圭, 「同族部落의 生活構造 硏究」, 大邱 : 靑丘出版部, 1964. 또는 李萬甲, 「韓國農村社會의 社會構造와 變化」, 서울 : 서울대出版部, 1973. 등이 있다.

19) 呂重哲, "韓國農村의 地域的 通婚圈", 「新羅伽耶文化」, 9,10輯, 大邱 : 嶺南大 新羅伽倻文化硏究所, 1979, 參照.

로 한 토착세력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토착세력들이 언제부터 육지부의 정권과 교섭을 시작해는지는 구체적으로 알길이 없으나 삼국시대들어 육지부와의 교섭은 삼국 중 거리가 가장 가깝고 신라보다 일찍 성장한 百濟와 주로 교섭이 이루어진 것 같으며[20] 백제가 망한 후 신라의 세력이 미치게 됨에 따라 文武王 2년 이후에는 신라와의 從屬關係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21] 탐라국의 이러한 육지부 정권과의 관계는 곧 行政組織의 體制改編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서 그것은 곧 교육행정의 구조나 절차의 개편과도 연관된 문제이기도 했다.

원래 어떤 집단이든 생산력 및 사회관계를 전제로 한 그 같은 協同樣式에서는 필연 서로의 의향이나 목적을 연결하는 意思疏通의 수단의 필요하게 된다. 이에 일찍부터 음절이 간추려진 言語가 생길 수 있으며 언어로 상호의사전달이 잘 이루어지면 인간적 사고력의 향상은 물론이요 노동과정의 집단적 협동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언어는 항용 집단적으로 관리가 되며 그 관리만을 전문으로 하는 敎師階級이 출현하기도 하고, 관리의 체계를 위한 敎育行政이 마련된다. 이처럼 교육행정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교육현상에 국가가 간여하여 이에 법적 규정을 두어 교육제도로 운영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敎育制度(Bildungswesen)란 근본적으로 陶冶(Bildung)의 활동이 발전된 형태로서 언어는 도야 활동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기초적인 精神的 財産(das geistige Gut)이다.

탐라국에서 언제부터 어떤 문자를 사용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事文類聚」[22]에 의하면 高麗, 文宗 때 중국 蘇州지방에 표착한 탐라인들이 지방관의 문정에 대해 서답하였는데 해독할 수 없는 雁行文字를 사용하였다고 하였다.[23] 여기서 안행문자가 어떤 글인지는 알 수 없으나 탐라국에는 고유의 특수한 表記文字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제주도 방언은 육지부의 그것과 격심한 차이를 보이는데 활용어미들은 國語史的인 면에서 볼 때에는 그 어미형태들 사이에 연대적으로 史的層位가 다르다고 보고 되고 있다.[24] 즉 7,8세기의 어미형태가 빈번히 쓰이는가 하면 18, 19세기 형태도 혼잡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로 미루어 볼때 제주도는 고유의 언어적 특색을 이미 갖추고 있었으며 그러한 문자사용과 관련한 도야 활동도 짐작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밖에 탐라 遠王이 高支昌을 신라에 보내어 신라에서 통용하고 있는 吏讀文을 배워 오게 한 일[25]이나 탐라 관청에서 고려 조정에 보내는 서류는 모두 漢字로 썼다는 기록[26]과 함께 日本이나 唐과도 공식적인 交易關係[27]가 있었음을 볼 때 外國語 특히 漢文과 관련한 도야활동 역시 짐작하

20) 「三國史記」 卷26, 百濟本記 4, 文周王 2年條, 「夏四月 耽羅國獻方物王喜 拜使者爲恩率」과 東城王 20年8月條, 「王以耽羅不修貢 賦親征室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 乃止」라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

21) 同上書, 卷6, 新羅本記 6, 文武王 2年2月條, 「耽羅國主佐平徒冬音律來陸」.

22) 「事文類聚」, 地道部條, 參照.

23) 金泰能, 「濟州島史論攷」, 서울 : 世起文化社, 1982, p.25.

24) 玄平孝, 金洪植, 姜根保, "濟州島 方言의 活用語尾에 대한 硏究," 「論文集」 第6輯, 濟州大學校, 1974, pp.15~16.

25) 「耽羅史年表」 및 「耽羅星主遺事」 參照.

26) 「事文類聚」, 地道部條, 參照. 金泰能, 「濟州島史論攷」, 서울 : 世紀文化史, 1982, p.440.

27) 唐과의 交易關係가 매우 밀접하였음은 1928년 山地築港 공사중에 다량의 遺物이 발견됨으로써 증거되었고 安德面 大坪里와 表善面 表善里 兩浦口를 唐浦라 하여 交易港口였음을 입증하고 있다.

기 어렵지 않다.

古代 耽羅語는 남방계어와 아이누어하고 관계 있으며 그 근간은 북방계어인 반도언어 그 중에서도 고구려계에서 연유되었다[28]는 학계의 주장도 있듯이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탐라국은 개체의 언어권을 넘어서 共同體的 圖式化(gemeinschaftliche Schematisierung)를 지향했었다는 사실이다. 즉 탐라국이라는 하나의 언어조직은 더 나아가서 다른 언어집단과의 상호적 영향과 내적 소통을 통해 하나의 共屬集團(zusammengehorige Verkehr)으로 발전되었고 따라서 탐라 특유의 언어적 특색을 유지함과 동시에 다른 언어집단들과의 공통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완만하기는 하지만 좀더 광범위한 언어 단일성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29] 이러한 이유에서 탐라시대와 고려시대가 언어적 차원에서 단절되지 않고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인데 그러한 연계성의 확보는 곧 공동체 언어정신의 생명력과 나아가 그것을 기초로 하는 탐라시대 교육현상의 生動性을 입증하는 좋은 예라고 하겠다.

탐라의 언어생활과 관련된 교육활동 가운데 주목되는 것 가운데 또다른 하나는 신라 神文王 4년 탐라 遠王이 사람을 신라에 보내 이두문을 배워 오게 한 일과 탐라 관청에서 고려 조정에 보내는 서류는 모두 漢字로 썼다는 기록인데 이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기 보다 중요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내용이다. 신문왕 4년은 신라의 大碩學 薛聰과 強首가 생존해 있던 시기이고 보면 이두문 학습에 있어서는 설총과의 관련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고려 조정에 보내는 외교문서를 한자로 썼다는 기록에서는 강수와의 관련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특히 강수이래 유학교육의 최고목표는 春秋義理에 배치되지 않는 美文으로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러한 예측이 무리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언어와 관련된 탐라의 제반활동은 이두문에서 한문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매우 포괄적이었으며 결국 신라를 통해 그 내용들을 숙지하게 되었고 高麗朝에 들어 순한문의 외교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언어적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新羅中代 이래 춘추의리에 배치되지 않는 미군으로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능력에 대하여 國學教育은 최고의 평가를 내렸으며 그러한 능력배양을 위해 文選과 春秋學이 교육되었는데 그 정치적 기능은 관인의 정치적 儀禮를 인지시키는 것과 외교를 위한 실용적인 것이었다. 신라의 이러한 교육 추세는 근본적으로 문학은 학문의 형식이면서 말을 바르게 하는 것과 臣節을 드러내는 외교적 업무 특히 翰林의 직을 맡아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공용성을 주장한 漢唐儒學의 貫道之器 文學論의 영향이었다. 이런 정황을 놓고 볼 때 탐라인의 고려 조정에 순한문의 외교문서를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은 신라에서의 언어학습을 위한 교육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중국교육의 思想史的, 制度史的, 行政史的 맥락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

28) 金公七, "耽羅語 研究", 「日本學報」, 第25輯, 1990, 參照.

29) 이러한 논의는 言語의 國民性에 관한 Humboldt의 견해를 그 토대로 하였다. W.von Humboldt, *Werke in fünf Bänden*, Bd. Ⅲ, Darmstadt, 1969, S.64ff, 參照.

나. 耽羅의 技術敎育行政 現況

탐라시대에 주목할 만한 것 가운데 또다른 하나가 技術敎育에 관한 내용이다. 奴隸所有制 사회로 옮겨지면서 기술교육은 사회의 하층민이 짊어져야 하는 고역으로 전락하게 되지만 原始共同體의 기술교육이란 근본적으로 노동을 편리하게 하는 도구를 만들고 사용함으로써 자연을 合目的的으로 개조하려는 생활활동이었다.[30] 고대사회에 있어서 기술교육은 집단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를 만들거나 그 도구를 조작하는 등 여러 행위의 모방, 훈련, 학습의 일상사 외에도 특수한 「秘儀」 傳授의 樣式이나 形態 속에 그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에의 염원과 그 발전은 인류 출현 이후 물질을 변형시키거나 재구성하면서 형성되어 왔다. 그러므로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도구와 그 도구를 조작하는데 따르는 規則을 습득한다는 것은 인류가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종족의 존속에 절대로 요구되는 본질적 행위였다. 기술교육이란 다름아닌 그러한 規則에의 入門을 말하는 것이며 入門의 節次가 곧 技術敎育行政인 것이다.

탐라의 기술교육은 우선 農業 관계분야가 주목된다. 제주도의 토질은 농업생산에 불리한 화산회토로서 지표에는 자갈 등 火山碎屑物이 널려 있다. 여기에다 지하는 화산의 영향으로 절리층을 이루고 있어 潭水 상태가 이루어 질 수 없어 거의 田作農法만이 가능한데 이렇듯 전작풍토이면서도 화산쇄설물의 영향으로 그 땅을 일구기란 지난한 일이었다. 더욱이 제주도의 농경은 「잡초와의 싸움」[31]으로 시종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農作業 중 가장 고된 노동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풍토적 악조건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한 땅을 일구는 방법이나 땅을 일구는 도구의 개발 등은 탐라의 농업기술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였을 것이다. 탐라국의 농경방식에 대해 기록은 「그 땅에 오곡이 자라고 농사일에 쇠스랑을 써 흙을 파서 고르고 소를 쓸줄 모른다」[32]고 전하고 있다. 즉 괭이나 따비, 호미 등에 의하여 밭을 일구는 방식이 발달하였다는 말인데 그것을 주조하는 풀무질 같은 기술도 병행하여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우리는 지석묘나 개국설화를 통해 제주도 특유의 두레 형태가 존재했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제주도의 농업에 있어서도 그러한 두레조직이 활용되었을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제주도 小農의 노동확보 수단에는 勞動交換을 목적으로 하는 수눌음과 접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이는 제주도 특유의 농업 두레로서 이 두레의 출현은 農業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하여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33] 수눌음이란 육지부에 있어서 품앗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農耕을 비롯하여 다수의 人力

30) Antoine Léon, Histoire de l'education technique, *Collection que sais-je?* No.938, 參照.

31) 姜景璿, "濟州道의 農耕方式(農法)에 대한 比較 硏究(上)," 「耽羅文化」 創刊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硏究所, 1982, p.91.

32) 「新唐書」, 流鬼傳, 「龍朔初 有儈羅者 其王儒李都羅遣使入朝 國居新羅無州南島上 俗朴陋 衣大豕皮 夏居草屋 冬窟室 地生五穀 耕不知用牛 以鐵齒耙土初附百濟 麟德中 酋長來朝 從帝至太山 後附新羅

33) 수눌음과 접의 출현을 朝鮮朝의 鄕約과 관련시켜 설명하는 입장이 있느데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勞動交換 형태의 命名과 관련된 것일 뿐 그 출현에 있어서는 農勞動의 시작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일에 노동에 교환하는 형태이다. 반면 접이란 계의 일종으로 수눌음은 수시로 필요에 따라 노동을 교환하는 非組織的 노동교환이었던데 비하여 접은 분명한 공동작업의 목표에 따라 조직된 노동교환 형태이다. 이러한 수눌음이나 접은 생활수단의 생산을 위한 기능으로서 생활수단의 생산은 근원적으로 인간의 생산이라는 교육의 본질 규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교육은 '生活手段의 生産'의 특정한 역사적, 사회적인 존재방식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농업관계 생산용구의 제작 그리고 농업 두레의 출현과 함께 농경은 개선되고 이에 牧畜의 개시가 겹침으로써 탐라인들의 定住 生活은 발전되고 비로소 생존수단을 안정적으로 재생산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즉 「三國志」나 「後漢書」에는 공히 탐라인들은 「소와 돼지를 잘 친다」[34]고 기록되었으며 「新唐書」에는 탐라인들이 「큰 돼지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산다」[35]고 기록되었는데 목축기술교육 가운데 특히 이러한 動物 馳養法이야말로 定住 生活의 안정을 위한 기초지식이며 의사소통의 내용이라는 점에서 탐라국의 교육적 談話와 행정을 가능케 하는 문화적 유산이다.

이밖에 탐라의 기술교육은 외부와의 교류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造船과 航海術의 흔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배를 만들거나 배를 다루는 일이 탐라인의 집단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일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탐라인의 해상활동은 그 역사의 전개와 더불어 시작된 오랜 것이었으며 따라서 조선과 항해의 역사도 같은 것이었다. 탐라는 일찍부터 신라는 물론 고구려나 백제와도 朝貢이나 해상교역을 긴밀한 관계를 맺었으며 「三國志」나 「後漢書」에 탐라민들은 「배를 타고 漢나라에 오가면서 장을 본다」[36]고 하였듯이 중국은 물론이요 일본과도 해상교류가 빈번하였음을 미루어볼 때 東海와 西海 혹은 南海를 넘어 다닐 수 있는 수준의 조선과 항해와 관련한 기술교육이 매우 활발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를테면 신라는 船府署와 같은 조선기관을 설치하여 조선과 항해를 감독, 발전시켰는데 탐라 역시 나름대로 활발한 기술교육을 관리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관리는 기술교육과 관련한 교육행정의 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예이기도 한 것이다.

Ⅲ. 結　　論

보통 敎育史 연구가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E.P.Cubberley(1868~1941)는 敎育制度와 敎育經營

34) 「三國志」, 魏志, 東夷傳, 「又有州胡馬韓之西海中大島上 其人差短小 言語不與韓同 皆髡頭如鮮卑 但衣韋 好養牛及猪 其衣有上無下 略如裡勢 乘船往來市買韓中」
「後漢書」, 「馬韓之西 海島上有州胡國 其人短小髡頭 衣韋衣 有上無下 好養牛豕 乘船往來 貨市韓中」

35) 註28) 參照.

36) 註34) 參照.

을 중심으로 교육의 발전을 찾고자 했었던 그의 독특한 敎育史 연구태도 때문에 「Public School Administration」(1915), 「The Principal and His School」(1923), 「State School Administration」(1927)을 비롯하여 敎育行政에 관한 저작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의 이러한 개척자적 정신은 본 연구의 수행에 많은 자극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筆者는 교육사 전공자로서 제주 교육의 發展史를 규명해내기 위한 방책으로 종전의 방법[37]과는 다른 교육행정사적 접근을 시도해볼 수 있었다.

본 시론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대 제주도의氏族社會는 共同體的 原理에 입각해서 생활을 영위하였는데 그러한 원리는 고대 제주 교육행정의 骨幹으로서 가령 三姓神話에서나 支石墓 축조를 둘러싼 구성원 전체의 협동행위나 수눌음 같은 씨족원의 노동교환행위 등에서 쉽게 엿볼 수 있었다. 씨족사회에서 진전된 耽羅國 시대에는 인접 국가들과 경제적인 交易이 행해짐으로써 言語의 사용과 技術敎育과 관련하여 보다 조직적인 차원의 교육적 行政行爲가 개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대 濟州島의 제반 교육적 행정행위들이 제주 교육행정사 전반을 구축하는 發展的 源流의 상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37) 思想史的인 차원에서 정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拙稿 「朝鮮朝 濟州 敎育思想史 硏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請求論文, 1991)이다.

參 考 文 獻

「論文集」, 第6輯, 濟州大學校, 1974.

「三國史記」

「新羅伽倻文化」, 9,10輯, 嶺南大 新羅伽倻文化研究所, 1979.

「耽羅文化」, 創刊號, 第2號, 第4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金奉玉, 「濟州通史」, 濟州 : 濟州文化社, 1987.

金宗業, 「耽羅文化史」, 濟州 : 조약돌, 1986.

金泰能, 「濟州島史論攷」, 서울 : 世起文化史, 1982.

李丙燾, 「韓國古代社會와 그 文化」, 瑞文文庫 71, 서울 : 瑞文堂, 1975.

韓國日本學會, 「日本學報」, 第25輯, 1990.

韓國哲學會, 「韓國哲學史」 上卷, 서울 : 東明社, 1987.

井上秀雄, 「新羅史 基礎研究」, 東京 : 有斐閣, 1974.

梅根悟, 「世界教育史」, 東京 : 新評論社, 1967.

Stein, L. V., 猪木正道 譯, 「社會の概念と運動法則」 みすず書房, 1949.

Brubacher, J.S., A History of the Problems of Education, New york & London : McGraw-Hill Book Company, INC, 1947.

Dilthery, W., Gesammelte Schriften V. Gottingen, 1968.

Hanson, E.M., Educatioal Administration and Organizational Behavior, London : Allyn and Bacon, INC, 1985.

Humboldt, W., Werke in funf Banden, Bd. Ⅲ, Darmstadt, 1969.

Leons, A., Histoire de l'education technique, Collection que sais-je?, No.938.

Peters, R.S., Ethics and Education, London : George Allen & Unwin LTD, 1970.

Waldo, D.,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New York : Random House, 1967.

Summary

A Study on History of Cheju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Primitive Times

Yang Jin-geon

This paper discusses a history of Cheju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primitive times, based upon specifics of the spritual culture peculiar to it.

In the education of pritive times there was probably little if any separate awareness of educational aims. Educational aims, if they existed, were most probalby indentical with the aims of life itself. Therefore, the aim of education was definitely conservative. It was too the logic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primitive times.

Even those early civilizations-TamLa(耽羅國)-which had advanced far beyond the primitive level were distinctly conservative in their educational behaviours. Their conservative educational behaviours were too the logic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in early civilizations.